

증권사, AI 활용 기업 분석·차트 해석 등 서비스 경쟁 치열

KB증권 대화형 투자 정보 제공

미래에셋증권 애플·스타벅스 등
美 상장기업 분기실적 AI 분석

한투증권 MTS에 'MY AI' 도입
개인정보·성향 맞춤형 랩 상품 추천

SK 증권 AI 올라·메이트 2종 출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과 차트 해석 등을 수행하는 이미지.

대형 증권사에 이어 중소형 증권사까지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기업 분석 보고서, 차트 해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AI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증권사 간 AI 서비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생성형 AI를 적용한 대화형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생성형 AI를 활용해 양방향으로 맞

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Stock AI' 서비스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PC와 태블릿에서도 이용 가능한 마블 와이드에도 적용했다.

하루에 가능한 질문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리고, 해외 주식에 관한 정보

등도 추가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애플·스타벅스·엑슨모빌 등 미국 상장 기업 분기실적을 AI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체 AI가 공시자료로부터 주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 담당 애널리스트가

틀린 정보가 포함됐는지를 감수한 후 최종 배포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적 발표 후 5시간가량 소요되던 분석 및 리포트 작성 작업을 5~15분 이내로 단축했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미래에셋증권은 AI 기술을 활용한 리포트의 양을 대폭 늘리고, 지속적 학습을 통해 분석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AI 기술 진보가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AI 리포트 서비스 '에어(AIR)'를 출시한바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올들어 자사 MTS에도 AI 기능을 도입한 마이 AI(MY AI) 서비스를 선보였다. MY AI는 한국투자증권 고객이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와 투자성향·투자계획·소득정보 등을 바탕으로 AI가 약 1억3000만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랩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중소형 증권사도 대형 증권사들의 이런 분위기에 맞춰 발 빠르게 나서고 있어 증권사 간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지난달 24일 기업의 주요 정보를 대화형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비서 'AI올라'와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프라이빗뱅크(PB) 'AI메이트' 2종을 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는 사람보다 빠르게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증권사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도화하고 있다"며 "AI 활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경쟁력을 높여 리테일 시장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美 주식거래 혜택 제공... 증권사, '서학개미' 유치 열전

개인, 지난달 해외투자 171.8억달러
동일 기간 美 매수액, 전체 약 95%
매수 수수료 0원, 환전 우대 행사 진행



(왼쪽부터)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포스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서학개미'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0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가 한창이다.

3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에 해외주식을 171억8737만달러(약 23조 6670억원) 매수했다. 전년 동기에는 102억7854만달러(약 14조 1535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 매수액이 증가한 모습이다. 동일 기간 미국주식 매수액은 164억3005만달러(약 22조 6159억원)로 전체 매수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 거래 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들도 서학개미 유치를 위해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무

료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증정한 국내 26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한 2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1분기 16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88% 급증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243억원·71%), 하나증권(55억원·66%), 토스증권(282억원·63%), KB증권(212억원·52%) 순이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8월 말까지 '미국주식 매수 수수료 ZERO'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규 고객과 해외주식 휴먼고객이 미국 주식을 매매할 시에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이번 달까지 '투자비용 제로(ZERO)' 캠페인 시즌 2를 통해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으며, 삼성증권에서도 이달 말까지 신규 고객과 6개월간 미국주식 휴먼 고객들은 첫 거래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거래 수수료가 무료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미국주식 매수 수수료 무료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전형숙 신한투자증권 DX그룹장은 "이번 이벤트로 미국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더 쉽고 간편하게 해외주식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에는 1달러당 0.5원 수준의 환전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NH투자증권은 이와 더불어 관련 계좌 개설 시 투자지원금 3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쿠폰과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환전 우대가 12개월 동안 유지된다. 하이투자증권은 '글로벌 바로매매 서비스'를 운영해 미국주식에 대한 매매 서비스와 편의성을 확대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경쟁도 지속될 수 있다"며 "특히 수수료 관련 이벤트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좋은 전략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감감이 배당' 개선 이행상황 점검

상장사 약 40%, 개선내용 정관 반영
취지 이해제고 위한 홍보 강화 필요

금융감독원이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감감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배당절차를 개선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은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

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배당 절차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원장보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도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문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대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

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한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원장보는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투자증권,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자본시장 중심 'One WM' 추진
디지털 사업 자기완결형 체계 구축

신한투자증권이 2024년 하반기 정기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중심으로 연결과 확장을 통한 자본시장 중심의 'One WM' 추진, 그리고 디지털 사업의 자기완결형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6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먼저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해 자산관리총괄 조직을 신설한 점이다. 자산관리총괄은 증권·은행의 프라임 웰스매니지먼트(PWM)와 증권 자산관리 비즈니스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증권고객뿐만 아니라 은행고객에게도 차별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략, 성과관리, 인사(HR), 내부통제 등 그룹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모든 역량을 'One WM' 관점에서 추진하며,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과 은행의 협업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총괄대표는 증권과 은행 겸직으로 증권 자산관리부문과 은행 WM그룹을 총괄한다.

다음으로 디지털사업의 자기완결형 체계 구축을 위해 자산관리사업그룹을 플랫폼그룹으로 재편하고, 전자디지털 및 플랫폼 관련 조직을 집중 편제한다. 플랫폼그룹은 전자 디지털 마케팅·설계·개발·운영업무를 일관화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 인공지능(AI) 솔루션, 다양한 외부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 정교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마케팅 등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있다"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류(一流) 신한투자증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